

중국 오리산업 현황

2011 중국 오리산업 견학 및 연수 주요 내용

글 사진 : 편집부

◎ 연수 일시

: 2011.07.18 ~ 7.24 (6박7일)

◎ 연수 장소

: 중국 하얼빈, 북경

◎ 주요 내용.

○ 중국사회의 현재

- 중국은 현재 성장률 9.8%대를 기록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국가로서 동부와 남부지역에 부촌이 밀집돼 있음.
- 중국에는 연간 천만불 이상의 고소득층이 2천만명 이상이며 이러한 고소득층은 중국 사회가 자본주의화되기 이전부터 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과 자본주의화 이후 새로운 사업 개척으로 신흥 갑부가 된 사람,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중국은 부유층이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 외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매우 빈약한 편.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음.
- 정치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경제는 완전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상태. 따라서 자본주의화 이후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 부유층의 경우 안전성 문제로 자국의 농수축산물을 무조건적으로 기피하지는 않으나 대신 자국내에서 유기농으로 재배, 사육한 고품질 제품을 주로 구입.

○ 흑룡강성 농근복대항목업 유한공사

연수현 경양농장 및 가공장은 흑룡강성(아무르강)에 위치. 흑룡강성은 중국에서 5번째로 큰 강으로서 중공업 기지로 유명하여 예전부터 가스 터빈, 보일러, 비행기 등을 제조해 왔음. 그러나 흑룡강성의 토질은 전세계에 4개 지역밖에 없는 흑토지역(검은 흙)으로 토질이 매우 비옥하여 흉년이 없기로 유명함.

1) 연수현 경양 오리 사육농장

- 연수현 경양농장은 중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음해인 1947년에 건립하여 흑룡강성에서 역사가 가장 긴 농장.
- 이 곳의 농장이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농장의 개념과 큰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농장은 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개별적 사업체 개념이라면, 이 곳의 농장은 국유기업으로 농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으로서 농장 내 병원, 주유소



등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모두 구비돼 있음. 하나의 사회적 집단이자 농업, 축산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 집단농장 개념임.

- 현재 연수현 경양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리는 전부 마이라고 부르는 중국 토종 오리품종으로서 한국의 청둥오리와 유사한 개념.



◎ 품종: 마아
 ◎ 사육일수: 180일
 ◎ 출하체중: 1.8kg

이 곳에서는 국내와 같이 육용오리 생산을 목적으로 따로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오리농법과 오리 사육을 겸하고 있음. 이는 국내에

서는 육질이 질긴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반면, 중국은 육질이 적당히 질기지 않고 너무 연하면 오히려 싫어하는 특성 때문에 가능.

먼저 새끼오리를 1일령부터 15~20일령까지 축사에서 사육한 후 논에 방사.

가) 새끼오리 육추사

1일령부터 15~20일령까지 새끼오리 육추. 축사는 낮은 비닐하우스 형태로 축사 내부를 모두 짚단으로 둘러싼 형태. (어린 오리가 폐사하지 않도록 방열을 목적으로 한 것) 환기시설은 없었음.

축사 내부는 모두 고상식 축사 형태로서, 철망을 통해 오리 분변이 밑으로 빠지도록 하였음. 새끼오리 육추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망의 구멍이 생각보다 컸음. 축사시설은 국내에 비해서도 상당히 열악한 편.



동당 5천수의 새끼오리를 입식하며 특이한 점은 한 동당 관리사를 하나씩 운영하고 관리인 역시 동당 2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 비해 관리인이 상당히 많은 편임. 각 오리 동은 지역별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 예방과 방역을 위한 것이라고 함.

이렇게 15~20일까지 육추를 마친 오리는 논에 방사함.



집중탐구

중국 오리산업 현황 2011 중국 오리산업 견학 및 연수 주요 내용

나) 오리농법 농장

쌀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농장주와 공영기업체(흑룡강성 농근북대항목업 유한공사)가 계약재배 형식을 채택.

1일령~15~20일까지 육추한 오리를 쌀 재배 농장주에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공급하면 농장주는 오리농법에 이용한 후 재판매.

약5천무(5×5km) 농지 기준 1만수방사.

◎ 개인 농장주의 논오리 구입가격(20일령 기준) : 1원 50전(한화 약 300원)

◎ 마야종 수컷만 이용 (암컷은 부화용으로 사용)

◎ 사료는 따로 공급. (수당 사료비 연간 7~8원 소요)

◎ 1.8kg 도달시 판매. (생체중 500g당 5~6원에 판매)

→수당 이윤이 약 4~5원 발생.

2) 연수현 오리 가공장

2008년 준공. 오리농법에 사용되는 오리를 전문으로 도축하기 위한 도압·가공장 형태. 현재 수리기간 중이라 가동중지상태. 국내 대부분의 도압장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이 곳의 도압·가공장은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음.

약한달 뒤부터 본격 가동 시작 예정이라 함.

◎ 기본 현황

- 도압수수: 시간당 3천수 (하루 3만수 규모)

- 직원 수: 120명

- 임금수준: 월 2천원 (한화로 약 32만원 정도)

- 도압공정은 한국과 유사(탈모를 위한 왁싱라인이 국내 2개인 반면, 이 곳은 4개. 이는 사육일령이 길어 탈모가 잘 되지 않기 때문)



- 탈모를 위한 왁스는 자연송진(파리핀 약간 섞어 씹) 사용
- 국내에서와 같은 토치 라인 없음
- 워터칠링 공정 있음

2. 연수현 부농장장 및 북대항목업 유한공사 부사 장과의 좌담회

부농장장 : 우리 농장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곳으로 46년 중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듬해 설립되었다. 사실 우리 농장은 전체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편(토지는 6.8만무, 농장인구는 1만 여명에 속한다. 그러나 농장이 오염이 안 돼 있고 자연적인 것이 장점. 산이 많고 물이 맑다. 우리는 쌀과 오리를 필두로 하는 축산업과 농업, 딸기와 오미자 등 약재를 위주로 하는 약재산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중 축산업과 공업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오리농업의 경



우리가 산동지역보다 발전돼 있는 편이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인구는 많은데 땅이 적은 편이지만 비옥한 토질과 저수지, 하천이 많은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조건하에서 오리를 키우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유기농 오리를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오리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오리 사육이나 가공에 있어 수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먼저 국내 시장 점유를 우선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논오리를 활용한 완제품이 2가지가 있으며 오리농법을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수단 : 제품이 현재 나오고 있는지?

부농장장 : 시제품으로 6월 15일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올 9월에 심양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때 제품을 출시하고 선보일 예정이다.

연수단 : 소비자들의 기호에 오리농법 오리가 180일 사육하는 오리가 맞는지?

부농장장 : 여러 가지 부위와 가공방법에 따라 질긴 정도를 조절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너무 연한 것은 연화제 등 약품을 썼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연한 고기를 기피하는 편이다. 그래서 오리농법을 통해 오리가 자유롭게 방사되어 너무 연하지 않게 키우고 있다. 120~180일 사육하는데 사육일령에 따라 가공법을 달리하고 있다.

연수단 : 수출을 위해 어느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지?

부농장장 : 유럽지역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한국도 고려중이다. 수출용 오리는 40~50일령을 고려중에 있다.

연수단 : 새로운 분야 개척한 셈인가?

부농장장 : 북경오리와는 완전히 틀리다. (한국 방식과 정

반대) 현재 가장 화두는 유기농 축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도모할 예정.

연수단 : 한국은 최근 오리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떤지?

부농장장 : 원래는 오리가 찬 성질의 식품이라 남방쪽 사람들이 원래부터 좋아했는데 요즘은 건강을 추구하는 풍조 때문에 북방지역 사람들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오리 고기가 몸에 좋고 저렴함)

연수단 : 훈제품에 대한 관심은 없는지?

부농장장 : 우리가 출시한 제품 대부분이 훈제 또는 삶은 제품이다.

연수단 : 오리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부농장장 : 300여명. 최고 목표는 천만마리 사육. 원래 백 오리 썼었는데 토종오리와 교잡종 시켜서 쓰고 있음. 현재 백색오리는 키우지 않으며 사육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음.

연수단 : 판로는 확보됐나?

부농장장 : 판매는 걱정하지 않는다. 6월 15일 출시 이후 오더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연수단 : 탈모, 중량, 수율에 대한 해결책은?

부농장장 : 고객의 구미에 따라...

연수단 : 오리의 비균일성에 대해서는?

부농장장 : 출하시 수율이 많지 않다고 하나 가격이 높은 편.

연수단 : 45일령 대비 금액은?

부농장장 : 생고기는 6원에서 6원 50전 정도 하는데 작년에 물량이 없어서 12원 정도 했다.

연수단 : 잔털 처리는?

부농장장 : 송진을 쓴다.

연수단 : 왁스처리 후 잔털 제거는?

부농장장 : 180일 이후에는 족집게로도 안 뽑힘. 그것을 고



집중탐구

중국 오리산업 현황 2011 중국 오리산업 견학 및 연수 주요 내용

려하여 사육. 사육시기(잔털 나는 시기)를 맞추는 것을 고려한다.

연수단 : 오리농법 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부농장장 : 오리농법 사용하면 농약, 잡초제거제 등 필요 없다. 한근당 5~7원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연수단 : 일반 쌀과의 가격차는?

부농장장 : 근당 70~80원 (일반쌀은 근당 5~7원) 약 10배 차이. 대신 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연수단 : 우리나라는 우렁이, 미꾸라지 등으로 유기농 쌀 재배법이 모두 바뀌었다.

부농장장 : 근당 70~80원 (일반쌀은 근당 5~7원) 약 10배 차이. 대신 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연수단 : 우리나라는 우렁이, 미꾸라지 등으로 유기농 쌀 재배법이 모두 바뀌었다.

연수단 :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부농장장 : 정책상으로 있으나 아직 신청을 안한 상태.

연수단 : 수출시 정부 지원책은?

부농장장 :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알아보지 못했다. 한국은 어떤 오리를 쓰는가?

연수단 : 페킨 오리(흰오리)

부농장장 : 이제 시작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산이 명산은 아니지만 좋은 산이 많이 있으니 가보시고 국유농장이자 국가기업이니 우리를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연수단 : 우리가 이곳에 오게된 목적은 한중 FTA 등 무역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중국시장을 좀 더 면밀히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머지 않아 중국과의 FTA 진행될 것인데 중국이나 우리도 수출에 대해 생각이 많은 것으로 안다. 서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으면 한다. 나름대로 국내 오리시

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다.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연수단 : 마지막으로 오리에 대한 전설 같은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부농장장 : 남녀가 부부가 되기 전에 오리로 점을 치는 오리점(궁합)이 있다.

○ 북경 공평조류가공공장

새끼오리를 받아 개별 농장에 위탁사육하다가 출하전 7~10일간 사료강제급여하여 북경오리만을 전문적으로 사육·도압·가공·유통하는 업체.

대표자가 원래 사료회사를 경영하다가 사료업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지자 오리업으로 업종 전환.

1) 일반현황

- 회사 설립연도 : 2007년도

- 투자금액 : 1,500만원~2,000만원선

* 초기 투자비용보다 유동자금이 많이 필요한 편.

- 오리종자 : 북경 사계종 (북경 순종)

* 따로 오리종자 수입하고 있지는 않음.

- 위탁농가 : 100호

- 종업원수 : 80~90명

- 종오리 1일령 수당 13원, 육용오리는 수당 3.5원 선



- 1차 사육 후(약 40일) 오리 수당 구입비용 : 5원선
- 최종 납품가: 40~50원선 (사료가격 따라 편차)
- 수당 생산단가: 약 37원선
- * 수당 순이익은 적은 편.
- 시간당 도압수수: 500수
- 강제급이기간 중 사료 소모량: 2.0~2.5kg
- 1일령~출하시까지 전체사료소모량: 9~10kg

2) 기본 운영방식 및 사육

- 부화장에서 새끼오리를 받아 위탁농장에 각각 분양. 약 40일 정도 농장에서 사육.
- 방문한 공장은 위탁농장에서 1차 사육을 마친 오리를 수당 약 5원에 재구입하여 2차 사료강제급이 후 도압·가공·납품하고 있으며 최종 납품가는 약 40~50원 정도. (사료 가격에 따라 최종 오리 가격이 변동됨)
- 1차 사육을 위탁하는 이유는 모든 오리를 직영으로 사육하기에는 이 업체의 사육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
- 위탁사육농장에서 1차 사육 완료 후 이 공장으로 출하시 출하율은 약 95% 이상되고 있으며 그 이하로 출하된다고 해서 페널티 조항이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음.
- 위탁농장과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손실율을 고려하여 위탁사육시 100수당 3수를 추가로 공급하여 가능한 100수는 공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기본제공마릿수 이상 출하분에 대해서는 위탁농가에 추가마릿수대로 비용을 더 얹어주고 있음. 그러나 기본제공마릿수가 모두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 따로 페널티가 적용되지는 않음.
- 오리 사육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음. (관

- 례에 따름)
- 위탁농장에 오리 외에는 깔짚, 사료 방역약품 등은 따로 공급하지 않음. 대신 사료, 방역약품 등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함.
- 오리는 따로 항생제나 약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 방침상 AI 백신은 투여하고 있으며, 백신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음.
- 강제급이는 7~1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하루 4번 급이 실시. 급이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천수 정도 처리 가능하며 그 이상은 어려움.
- 북경시내에 가장 많은 북경오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하루 1만수.
- 7~10일간 강제급이를 실시하는 이유는 단기간 내 원하는 중량까지 비육하기 위한 것. 강제급이 방식은 프랑스의 푸와그라 생산 과정과 거의 유사함. 이렇게 최종 도압 전까지 3.0~3.5kg에 도달.
- 7~10일간 강제급이시 사료는 약 2.0~2.5kg이 소요되며, 1일령부터 출하시까지는 약 9~10kg의 사료가 소모됨.
- 국내에서 육용오리 수당 출하시까지 약 6~7kg의 사료가 소모되는 데 비해 사료소모량이 많은 편.
- 지난해 이러한 방식으로 120~130만수 정도 생산했으며 올해에는 150~160만수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도압·가공 및 유통

공장이 모두 간이식 건물. 이는 업체와 정부가 공장 토지에 대하여 30년 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정식 건물 신



집중탐구

중국 오리산업 현황 2011 중국 오리산업 견학 및 연수 주요 내용

축은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압시 라인을 통해 도압공정이 이루어지며 시간당 500 수의 오리를 도압하고 있음. 북경오리는 껍질의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리 도압 가공 공정에 비해 보다 섬세한 작업이 필요. 따라서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없음.



중국의 경우 밤 10시 이후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압공정은 모두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정도까지 이루어 짐.

북경오리용 오리는 도압 후 내장적출을 모두 오리의 입을 통해 하고 있는데 이는 북경오리의 가장 중요한 피부(껍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내장 적출 후 오리의 항문부에 수수깡을 삽입, 공기를 주입하여 껍질과 살코기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고 있음.

위생검사는 정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의 도압자격증을 농업관리국에서 발급. 최근 모든 식품관리법이 엄격해지면서 많은 업체가 자격을 박탈당하여 정리되고 있는 상황.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수의사가 매일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수의사는 3~5개월에 한번씩 바뀜.

이 수의사는 제품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으로 보내고 있음.

4) 기타 질의응답

Q 공장 운영시 정부지원은?

A. 5~6년 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북경은 공업기 지이지 농업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없음.

Q 이곳의 주요 납품처는?

A. 전취덕 외 2개 요식업체. 모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북경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 본사로 제공하고 있음.

우리가 납품처로 수당 40~50원 선에 오리를 납품하면 최종 오리 요리로서 소비자가격은 수당 198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음. (약 4배)

우리가 납품처로 직접 오리를 납품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배송센터로 오리제품을 넘기면 배송센터에서 납품처로 일괄 발송.

Q 수입오리와의 차이점?

A. 북경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넓고 크기 때문에 품질문제 등으로 북경오리는 북경내에서 생산된 오리를 사용. 북경오리용이 아닌 경우 대부분 냉동으로 유통되고 있음. 또한 수입오리는 부분육 형태로 일부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Q 강제급이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A. 1800년대부터 강제급이 방식을 통한 북경오리가 생산되어 왔으며, 대추 또는 과일나무로 구워내는 지금의 방식은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전취덕이라는 곳에서 처음 고안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

○ 북경 남교 압업회사

1. 일반현황

- 현재 공장의 사정상 휴업중(개인회사로 외부 투자 유치중)
- 2007년 설립되어 도축, 가공만 이루어지는 업체
- 중국내 오리고기와 부산물을 공급
- 위탁농가(1,000여농가) 운영했었으며, 종오리농장과 부화장을 운영
: 종오리는 영국의 소규모 회사에서 수입
- 부화장 규모: 월 60만개 생산규모
- 도입장 투자비: 12,000만 위안

2. 운영방식 및 사육

- 종란은 3원에 구매(작년 11월엔 종란 부족으로 7원에 구매)
- 사육비는 30일 사육시 2.8위안, 40일 사육시 4위안정도 지급
- 30일 사육시 생체 2kg정도로 출하하며 총 사료섭취량은 3.5kg(출하율은 98%내외)
: 부분육이나 오리발이나 오리머리 등의 부산물을 생



- 산키위해서 생체를 3.5kg까지 사육
- 위탁농장에 분양시 2명에 5,000수 규모로 위탁을 하며 농장에서는 방사형태로 사육(축사가 개방되어 있으며 울타리내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함)
- 새끼오리는 부화후 24시간 이내에 분양
- 월 60만수 생산시 1억2천만원정도의 수익(마리당 18원 정도로 수익을 봄)
- 생산된 오리는 2개의 유통업체와 계약하여 납품(대부분 냉동으로 유통)
- AI백신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접종하고 있으며 북경내 축사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